





차례

희한한 과일대풍을 마련하시려.....1	스무번째 열린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26
축복받은 교육자들.....4	평안남도전쟁로병보양소.....30
광명한 미래에로 부르는 사회주의진군가.....6	룩등상을 받은 소년.....32
전력증산의 불길 세차게 타번진다.....10	별두개의 금메달.....34
새형의 자동차생산.....12	어머니의 행복.....36
집안적경정열풍속여.....14	△ 천연기념물 안변느티나무.....37
인민들이 좋아하는 식료품을 더 많이.....16	새로 나온 선전화들중에서.....38
백두산 8경.....18	날로 고조되는 남조선인민들의 반미, 반전투쟁기운.....38
머거온 청년과학자.....21	소식.....40
오늘의 창성군.....22	



황해남도 과일군을 현지지도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주체106(2017)년 9월

희한한 과일대풍을 마련하시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지난 9월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첫해에 세상이 부럽도록 희한한 과일대풍을 안아온 과수의 고장 황해남도 과일군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과일군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가물과 고온현상이 지속된 불리한 조건속에서도 지난해보다 정보당수확고를 2.5배, 특히 사과를 5.8배로 늘이는 기적같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전례없는 과일대풍을 마련한 자랑을 보여드리고싶어 삼가 그리움의 편지를 올린 지난 9월초부터 이제나저제나 기다리고 또 기다리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자기들의 고장에 모신 과일군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가슴은 한없는 격정으로 세차게 설레이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일군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며 혹심한 자연재해속에서도 과일대풍을 마련하느라 정말 수고들이 많았다고 하시면서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첫해에 과일군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자기들의 성실한 땀과 열정을 바쳐 당정책이 얼마나 정당한가를 실천으로 증명하였다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과일군혁명사적관과 과일군연혁

소개실을 돌아보시면서 여러차례 과일군을 찾으시여 우리 인민들에게 맛좋은 과일을 안겨주시려고 마음쓰신 우리 장군님의 불면불휴의 헌신과 로고가 있었기에 과일군의 오늘이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과수연구소를 찾으시고 분석실, 정보실, 전자열람실 등을 돌아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전망대에서 과일군의 전경을 부감하시고 과수밭들을 돌아보시였다.

눈뿌리 아득히 펼쳐진 청춘과원을 바라보느라니 정말 기분이 좋고 어깨춤이 절로 난다고 하시면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시인들이 이곳을 돌아보면 아마 좋은 시구절이 떠오를것이며 창작가들은 《철령아래 사과바다》와 같은 명곡을 내놓게 될것이라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과일군이 올해 이룩한 성과에 토대하여 더 높이 비약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지지도를 받은 과일군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뜻을 실현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새로운 집단적혁신을 일으켜갈 불타는 결의를 다지였다.

글 김래현



과일품종들을 보여주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주체106(2017)년 9월



전망대에서 과일군의 전경을 부감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주체106(2017)년 9월





섬분교와 최전연지대, 산골학교들에 자원진출한 교원들을 만나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주체106(2017)년 9월

축복 받은 교육자들

지난 9월 조선에서는 섬분교와 최전연지대, 산골학교들에 자원진출하여 조국의 미래를

위한 길에 깨끗한 량심과 헌신의 자욕을 새겨가고있는 교원들이 온 나라의 축복속에 평양

에서 뜻깊은 나날들을 보내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



교육조건과 환경이 훌륭히 꾸려진 교육시설들을 참관하는 섬분교와 최전연지대, 산골학교들에 자원진출한 교원들

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섬분교와 최전연지대, 산골학교들에 자원진출한 교원들을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그들은 조국과 후대들을 위해 응당 해야 할 일을 한 자기들의 소행을 높이 평가하시며 대를 두고 길이 전할 사랑의 선물을 안겨주시고 당 및 국가표창을 수여하도록 해주시였으며 뜻깊은 평양견학을 하도록 친어버이사랑을 베풀어주신데 이어 오늘은 또다시 한생애 잊지 못할 뜨거운 은정을 돌려주시는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며 위대한 스승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우러러 《만세!》의 환호성을 터쳐올렸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당에서 걱정하는 문제, 당이 바라는 일에 한몫 아낌없이 내대는 투철한 신념과 백옥같은 충정의 마음으로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말건 조국의 미래를 책임진 교원혁명가로서의 깨끗한 량심과 헌신의 자욕을 새겨가고있는 이들모두의 순결한 애국심에 머리가 숙여진다고, 온 사회가 이들을 적극 내세워주어야 하며 그들이 지닌 혁명가적인생관, 후대관을 따라배워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섬분교와 최전연지대, 산골학교들에 자원진출한 교원들이 앞으로도 당과 조국앞에 다진 맹세를 변함없이 지켜 교수교양사업에 모든 지혜와 열정을 다 바침으로써 후대들을 사회주의조선의 믿음직한 주인공들로 억세계 키워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평양체류의 나날 교원들은 시민들의 열렬한 축하를 받으며 여러곳을 참관하였다.

글 김정

섬분교와 최전연지대, 산골학교들에 자원진출한 교원들은 뜻깊은 평양체류의 나날에 유서깊은 혁명의 성지 만경대를 방문하고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중앙계급교양관 등 여러곳을 참관하면서 영예롭고 보람찬 초소에서 조선로동당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숭고한 뜻을 충정으로 받들어갈 맹세를 가다듬었다.



광명한 미래로 부르는 사회주의진군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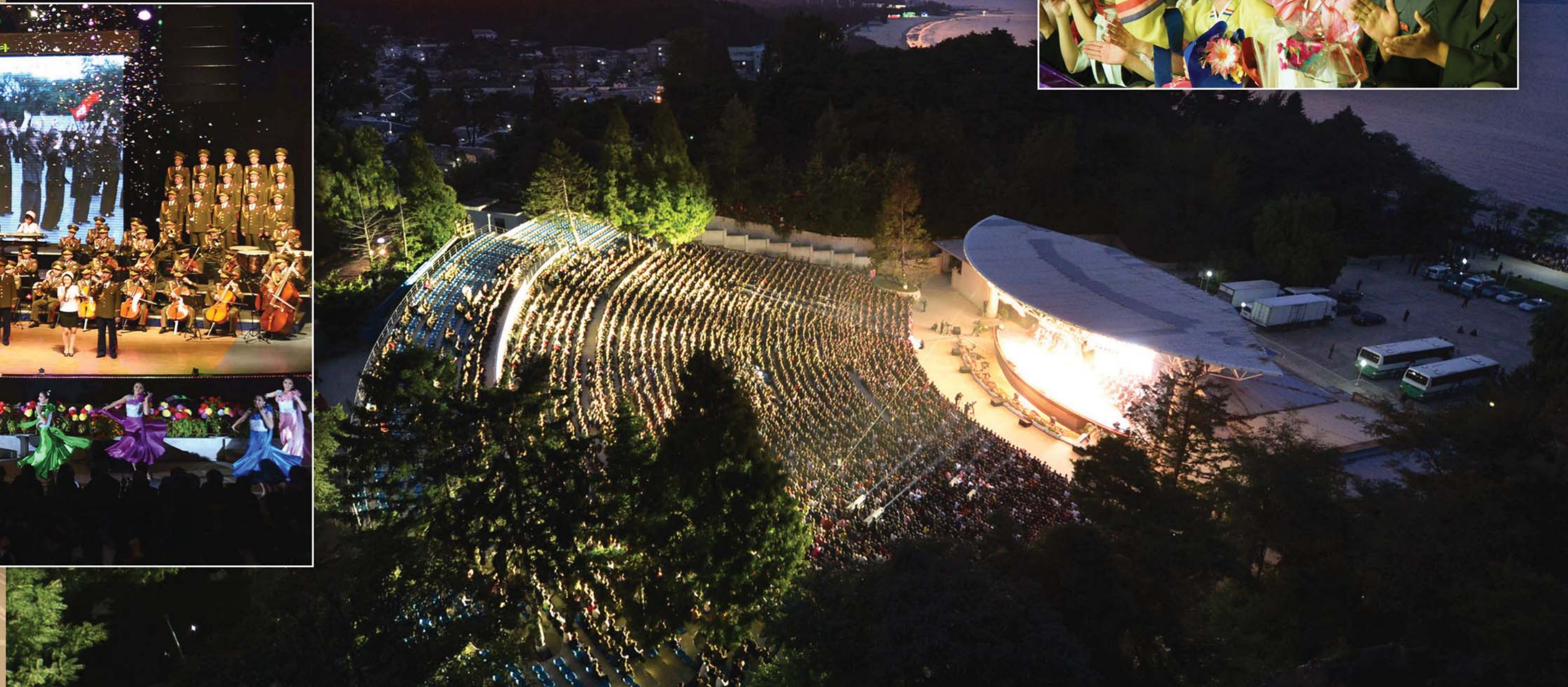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기치높이 힘차게 전진하는 조선의 천만군민에게 필승의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는 공훈국가합창단, 모란봉악단, 왕재산예술단의 음악무용종합공연이 지난 9월 강원도 원산시와 함경남도 함흥시에서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애국가의 장중한 음악으로 시작된 공연에서 출연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애국념원, 강국념원을 실현하기 위한 길에 모든것을 다 바치시며 주체조선의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서 펼쳐주시고 무궁번영할 태양민족의 천만년미래를 억척같이 담보해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격조높이 칭송하였다.

만리마속도로 비약하는 사회주의조선의 강성변영의 기상이 나래치고 자기 힘을 굳게 믿고 행복하고 문명한 생활을 꽃피워가려는 조선인민의 지향과 의지를 환희로운 음악세계로 펼쳐보인 공연은 시종 관람자들의 대절찬을 받았다.

공연은 선군혁명나팔수들이 높이 올린 총진군의 포성으로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자력갱생의 영웅신화들을 끊임없이 창조하여 최후승리의 결승선에 남먼저 들어서려는 강원도와 함경남도 근로자들의 혁명열, 투쟁열을 백배해주었으며 사회주의강국건설에 펼쳐나선 온 나라 인민들을 힘있게 고무추동하였다.

사진 조선중앙통신 글 김현







발전소에서는 표준조작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면서 발전설비들의 기술개조에 힘을 넣어 전력생산을 정상화하고있다.

전력증산의 불길 세차게 타번진다

나라의 중요한 동력기지의 하나인 희천2호발전소에서 전력증산의 동음을 높이 울려가고있다.

희천2호발전소는 5년전 조선의 군대와 인민이 《단숨에》의 기상을 떨치며 일떠세운 수력발전소이다.

해마다 전력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여온 발전소에서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서 관건적인 해인 올해에 자력자장의 기치를 높이 들고 발전설비들마다 만부하를 걸어 많은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표준조작법의 요구를 엄격히 지키고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짜고드는 로동자, 기술자들의 주인다운 일본새로 하여 설비들의 만가동이 보장되고있다.

자체의 힘과 기술로 통합생산체계를 구축한 발전소에서는 물관리와 전력생산조직을 과학기술적으로 하고있다.

이와 함께 발전설비들의 기술개조에도 힘을 넣어 수차의 효율을 높이였으며 수문조작에서 과학성과 정확성을 철저히 보장할수 있는 자동측정장치도 개발도입하였다.

그리고 발전설비들과 구조물들에 대한 보수를 정상적으로 하여 전력생산을 높이고있다.

국가통합전력관리체계가 수립된 희천2호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 는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되고있다.

사진 안철룡 글 박병훈



새형의 자동차생산



자동차생산을 위한 각종 설계를 앞세우고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서 관건적인 해인 올해에 승리자동차
연합기업소에서는 새형의 자동차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지난 수십년간 《승리-58》형 자동차를 비롯한 여러가지 형의 자동차
들을 생산하여 나라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하여온 기업소에서는 지난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맞으며 새형의 자동차를 개발한데 이어 년초
부터 계열생산에 힘을 넣었다.

설계와 가공, 조립 등 기업소의 그 어디에서나 자력자강의 정신으로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악랄한 반공화국제책들을 짓부셔버릴 일념
으로 뚫어번지였다.

일군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은 창조와 혁신으로 계열생산을 위한 공정
을 꾸리고 설계와 제작, 생산을 동시에 밀고나감으로써 4 000여건에 달
하는 장비설계를 완성하고 10여종에 수십대의 설비들을 현대화하였
으며 생산공정의 흐름선화를 실현하였다.

그리고 새로 개발한 부속품생산공정과 소재생산공정도 꾸리였다.

기업소에서는 부속품가공을 적극 다그치면서 조립속도를 높여나가
고있다.

사진, 글 리명국



자동차생산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면서 조립속도를 높여나가고있다.





집단적경쟁열풍속에

오늘 조선에서는 누구나 만리마의 기수가 되어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내달리고있다.
조선로동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새로운

조선속도를 창조하며 10년을 1년으로 주름잡아 내달리는 만리마시대를 열어가는 사람들속에는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의 로동계급도 있다.



직포종합직장 직포공 김옥향, 문강순, 오경희, 리명순, 김영심



방직종합직장 정방공 리혜심, 조향미



견방종합직장 직포공 한명희, 리은효, 류옥향, 신은별



직포종합직장 직포공 오경희, 수리공 서영삼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한 올해의 전민총돌격전에서 승리자가 될 드높은 열의에 충만되어있는 그들이다.

직포종합직장의 직포공들은 새로운 기대순회방법을 부단히 탐구하고 다기대운동을 경쟁적으로 벌리면서 집단적혁신의 불바람을 일으키고있다.

기능공들은 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드바쁜 속에서도 갓 들어온 로동자들에게 기대를 다루는 방법을 차근차근 배워주고있다.

신입직포공들은 기술기능수준을 부단히 높여 영웅직포공, 공훈방직공들처럼 새 기록을 창조할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기대순회길을 쉬임없이 달리고있다.

방직종합직장과 권사직장의 일군들과 생산자들은 직장별로 사회주의경쟁을 벌리면서 실생산성과를 확대하고 이에 뒤질세라 염색종합직장의 종업원들도 염색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술혁신으로 색깔과 문양고운 천들이 더 많이 생산되도록 하고있다.

공장의 그 어디에서나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과 같은 집단적경쟁열풍속에서 직포공들인 로력영웅이며 최고인민회의의대원 문강순과 공훈방직공 리명순을 비롯한 공장의 많은 종업원들이 지난 4월 태양절을 맞으며 년간생산계획을 완수하는 성과를 이룩한데 이어 지금은 2년분, 3년분, 4년분 인민경제계획완수자들이련속 배출되고있다.

《동무는 만리마를 탔는가》라는 시대의 물음에 《우리는 만리마를 탔습니다》라고 힘찬 합창으로 화답하려는것이 공장종업원들의 한결같은 마음이다.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의 방직공들은 그 기세, 그 기백으로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한 올해의 총진군대오의 앞장에서 계속전진, 계속혁신해나가고있다.

사진 홍광남 글 김옥경



인민들이 좋아하는 식료품을 더 많이

락량락연가공사업소에서 날을 따라 높아 가는 인민들의 요구에 맞는 여러가지 질 좋은 식료품들을 생산하고있다.

20년전부터 맛좋은 에스키모생산으로 널리 알려진 사업소에서는 사람들의 건강에 좋은 명제품들을 개발생산하는것을 경영전략으로 내세우고 일관하게 밀고나가고있다.

지배인 박미옥을 비롯한 사업소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영양성분이 높으면서도 맛이 독특하고 위생안전성이 담보된 50여가지의 에스키모를 비롯하여 과일단물과 우유와 같은 음료들을 개발생산하여 사람들의 호평을 받았다.

최근에는 현대적인 요구르트생산공정을 일떠세우고 영양음료들의 개발에 힘을 넣고있다.

새로 꾸려진 생산공정에는 이온교환수지러 파기가 설치된 물정화시설들과 초고온살균기, 수평살균기와 같이 제품의 무균성을 철

저히 보장할수 있는 멸균시설들까지 갖추어져 있다.

원료투입으로부터 포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산공정들이 자동화, 흐름선화되어있는 여기에서는 영양우유와 된요구르트, 복숭아요구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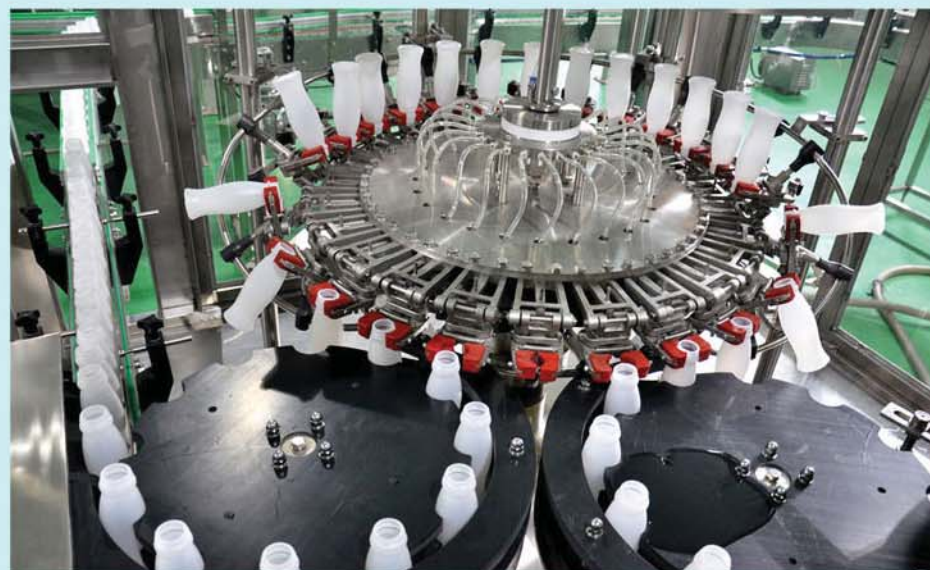
트와 딸기우유 등 10가지의 음료들이 생산되고 있다.

살균형젖산균음료인 영양우유는 맛이 독특하면서도 건강장수에 좋은 천연음료로서 성장기 어린이들의 몸을 튼튼히 해주는 건강식품이다.

복숭아요구르트를 비롯한 과일요구르트들은 소화가 잘되게 하는 영양치료음료들이다.

락량락연가공사업소에서 생산하는 영양우유와 요구르트들, 에스키모와 아이스크림 그리고 각종 과일단물들에 대한 수요는 나날이 높아지고있다.

사진 홍래웅 글 김현





백두산의 해돋이



향도봉의 친필글발

백두산 8경

지난 5월 백두산의 천하절경이 《백두산 8경》으로 명명되어 천만의 심장을 끝없는 걱정으로 뚫어번지게 하고있다.

백두산은 조선민족의 넓이 깃들어있고 조선혁명의 뿌리가 내린 조종의 산, 혁명의 성산이며 웅장함과 숭엄함, 신비로움과 절묘함을 타고난 조선의 명산이다.

새로 명명한 《백두산 8경》은 백두산의 해돋이(백두일출), 향도봉의 친필글발(향봉친필), 백두련봉의 웅장한 자태(련봉웅자), 백두의 칼바람(백두렬풍), 삼천리조국땅이 바라보이는 장군봉(장봉전망), 장쾌하고 우아한 천지(천지절경), 눈속에 핀 만병초(설중개화), 떼지어 노는 천지산천어(군유가어)이다.

백두산의 일만경치가운데서도 제일 먼저 손꼽히는것은 백두산의 장쾌한 해돋이이다.

이른 새벽 캄캄한 어둠을 밀어내며 눈부시게 떠올라 온 누리를 붉게 물들이는 해돋이는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찬연한 빛발로 인류의 앞길을 밝혀주신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숭엄한 위인상이 그대로 안겨오는듯 하여 끝없는 걱정을 자아낸다.

백두산의 해돋이는 계절과 날씨, 보는 장소에 따라 그 멋이 서로 다르고 느낌이 다채로와 변화무쌍한 장관을 이룬다.

힘차게 휘날리는 대형붉은기를 련상시키는 향도봉에 새겨진 《**혁명의 성산 백두산 김정일**》이라는 위대한 장군님의 활달한 친필글발은 백두의

담력과 배짱으로 조선을 빛내여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숭엄한 감정으로 되새겨보게 한다.

장군봉, 향도봉, 해발봉을 주봉으로 216개의 크고작은 봉우리들이 만리창공에 치솟은 백두련봉의 웅장한 자태는 령도자의 두리에 전체 군대와 인민이 일심단결된 주체조선의 위용인듯싶다.

백두련봉의 기이한 자연조화는 그 모양 또한 형형색색인것으로 하여 백두산의 만물상으로 불리우고있다.

한번 불어치면 만리창공에 백설을 휘뿔어올리고 천지의 푸른 물줄기로 격랑을 일으켜 바위를 치고 절벽을 들부시며 천심을 울리고 지축을 뒤흔드는 백두의 칼바람도 《백두산 8경》의 하나이다.

눈뿌리 아득하게 펼쳐진 백두밀림을 비롯하여 삼천리조국땅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장군봉마루에 올라서면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령도밑에 승승장구하여온 조선혁명의 자랑찬 로정이 되새겨지고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결심과 의지를 더욱 굳게 다지

게 된다. 해발높이가 2 750m인 장군봉은 백두련봉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인 동시에 조선의 최고봉이다.

백두련봉의 천태만상이 비끼고 사계절풍치가 한데 어울려 독특한 자연경관을 이룬 장쾌하고 우아한 천지는 아름다운 삼천리금수강산에 대한 민족적공지를 한껏 느끼게 한다.

어떤 풍파속에서도 변심없이 당과 수령만을 믿고따르는 조선인민의 억센 기상인듯 눈속에 핀 만병초와 천지에서 산천어들이 떼지어 다니는 희귀한 현상은 백두산의 특이한 풍치로 만사람의 경탄을 자아내고 있다.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백두산 8경》을 민족의 재보로 길이 전해가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이 땅우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념원, 강국념원을 반드시 현실로 꽃피워나갈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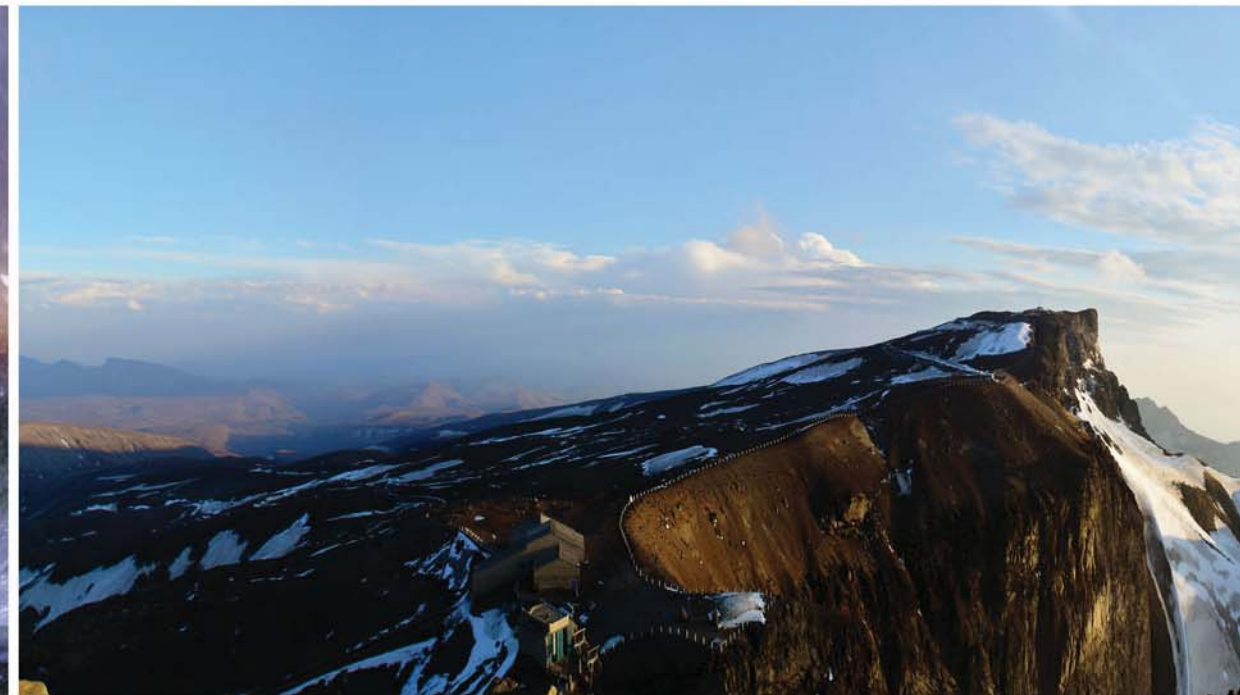
사진 변찬우 글 김옥경



백두련봉의 웅장한 자태



백두의 칼바람



삼천리조국땅이 바라보이는 장군봉



장쾌하고 우아한 천지



눈속에 핀 만병초



떼지어 노는 천지산천어

미더운 청년과학자

평양남새과학연구소 실장 심정혁은 30대 초엽의 젊은 과학자이다.

연구사업을 시작한지 6년밖에 되지 않지만 그는 온실남새생산의 주체화, 현대화를 실현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그가 과학탐구의 닦은 연구소에 내린데는 깊은 사연이 있었다.

주체100(2011)년 3월 평양남새과학연구소를 찾아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나라의 남새생산을 늘여나가는데서 이곳 연구소가 맡고있는 임무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김일성종합대학 생명과학부의 박사원 졸업생들로 강력한 과학연구력량을 꾸려줄데 대한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었다.

그 믿음과 사랑속에 연구소에 배치되던 날 그는 온실남새농사에서 선봉적역할을 하는 기수가 되리라 마음다지였다.

문헌조사와 지난 시기 남새생산에서 이룩된 성과자료들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연구의 첫걸음을 댔 그는 수경재배방법에 주목을 돌리게 되었다.

일명 무토양재배, 영양액재배라고도 하는 이 재배방법은 토양을 리용하지 않으면서도 적은 면적에서 많은 수확고를 내는 의의있는것이였다.

그는 나라의 수경온실들에서 작황을 높이는 것을 연구목표로 내세우고 달라붙었다.

작물의 성장발육에 필요한 영양원소들을 추출하여 그것으로 영양액을 만드는 문제, 빛세기를 조절하여 영양액관수의 효과성을 높이는 문제, 작물의 영양상태에 대한 진단문제 등 연구지표들을 하나하나 선정하고 탐구의 주로를 이악하게 달리였다.

수십차에 달하는 모의시험과 여러 단계의 재



평양남새과학연구소 실장 심정혁

배시험을 거쳐 새로운 영양액치방과 관수체계를 완성한 그는 이와 관련한 작물의 생리적특성들을 과학적으로 밝혀내고 작물관리의 표준화를 실현하였다.

이에 토대하여 해당 단위의 과학연구집단과 힘을 합쳐 수경온실에서 가장 중요한 영양액공급계통과 온실의 구조설계를 새롭게 완성하였다.

그의 연구성과는 현실에서 큰 은을 나타내었다.

수경온실에서 정보당 수확고가 지난 시기보다 2배로 높아져 인민들에게 사철 신선한 남새를 더 많이 보내줄수 있게 되었다.

그는 지금 전국의 수경온실들에 연구성과를 확대도입하기 위하여 드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사진 리명일 글 김미경





조선의 서북변 압록강연안에 위치하고있는 평안북도 창성군은 군면적의 95%가 산지이다. 지난날에는 높고 가파로운 산들을 몇개씩 넘어야 이웃군지경에 겨우 닿는데다가 군안의 얼마 안되는 땅마저 메말라서 사람못살 고장의 대명사로 불리우던 곳이다.

그러한 이 두메산골에 로동당시대와 더불어 시작된 전변의 역사는 오늘도 줄기차게 이어져 창성땅은 해마다 달라지고있다.

지난날 궁벽과 궁핍을 낳는 원망스러운 대상이였던 산들은 갖가지 산열매들이 주렁진 황금

황금산의 새 역사를 펼쳐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기
위하여 세운 탑

오늘의 창성군

산으로 되었고 골짜기들에서는 염소떼, 양떼들이 유족함과 풍만함을 자랑하듯 흰 구름마냥 유유히 흐른다.

사람들이 유족하고 문명하게 사는 무릉도원은 바란다고 저절로 오는것도, 누가 가져다주는 것도 아니라는것을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나날을 통하여 절실히 느낀 창성사람들이다.

환경과 조건을 탓하지 말고 자기에게 있는 밑천과 가능성을 최대한 동원리용하여 자기 고장을 남들이 부러워하는 군으로 기어이 꾸러갈 마음안고 이들은 지방산업공장들마다에서 생산을 다그치고 농사와 축산업도 꾸준히 내밀고있다.

그 나날 창성식료공장의 경우만 보아도 산과일가공에서 패권을 쥔 높은 목표를 세우고

생산공정들에 대한 통합생산체계를 수립하고 줄기차게 노력하여 제품들의 질을 훨씬 높이였다.

오늘 《황금산》상표를 단 이 공장제품들은 수도와 각지에서 천연건강음료, 건강식품으로 사람들의 커다란 호평을 모으고있다.

가구공장, 직물공장을 비롯한 다른 지방산업공장들에서도 생산공정들을 현대화하고 군안의 원료, 자재를 가지고 질 좋은 소비품들을 만들어 군내 수요를 충족시키고 다른 지방에 까지 보내주고있다.

이렇게 경제를 활성화하여 인민생활을 향상시킬 밑천을 하나하나 마련한데 토대하여 군에서는 2년전 읍지구를 감돌아흐르는 영주천 기슭에 은덕원과 군인민병원을 새롭게 일떠세

웠다.

그리고 지난해에 읍지구의 영주천제방공사를 완성하고 금야리에 50세대의 농촌문화주택을 일떠세운데 이어 올해에 들어와 읍지구에 40세대의 살림집을 완공하여 새집들이를 하였다.

지금도 읍지구에서는 여러동의 소충살림집들이 완공을 가까이하고 어린이교통공원이 건설되고있는것을 비롯하여 군의 면모를 일신하기 위한 사업이 활발하게 벌어지고있다.

이 나날 창성사람들의 문화정서생활수준도 훨씬 높아졌다.

창성땅에 펼쳐지는 전변을 보려고 오늘은 다른 지방의 사람들이 이곳으로 많이 찾아오고 있다.

사진 리광성 글 최광호





산마다 주렁진 사과일들과 갖가지 산나물들을 원료로 하여 창성식료공장에서는 질 좋은 천연건강음료, 건강식품들이 생산되고있다.



창성군에는 인민들의 건강증진과 문화정서생활을 위한 시설들이 꾸려져있다.



스무번째 열린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



제20차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가 지난 9월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세계 69개 나라와 지역의 선수단, 대표단들이 참가한 이번 선수권대회에서는 틀, 맞서기, 위력, 특기, 호신 등 종목별경기들이 모두 진행되었다.

남, 녀개인틀경기와 단체틀경기에서 선수들은 동작의 정확성과 일치성, 속도와 힘, 균형, 룰동 등 모든 세부들을 완벽하게 수행하면서 태권도의 기상을 훌륭히 보여주었다.

맞서기 여러 단계경기에 출전한 선수들은 우승의 영예를 쟁취할 열의밑에 독특한 전술과 전법, 타격기술을 능동적으로 활용하며 높은 육체기술적능력을 보여주었다.

특기, 위력경기들에서 난도높은 기술동작들을 손색없이 수행하고 빠른 속도와 폭발적인

힘으로 각이한 위치에 있는 목표물들을 단번에 격파하는 선수들의 경기장면들은 관중들의 경탄을 자아내었다.

빠른 정황판단으로 상대방의 약점을 포착하고 위력하면서도 체치있는 타격들과 여러가지 기술수법으로 적수들을 순식간에 제압하는 호신경기도 시종 열기를 띠었다.

선수권대회에서 조선선수들은 평시에 련마한 높은 기술과 완강한 투지로 우승컵 3개, 금메달 22개, 은메달 9개, 동메달 4개를 쟁취하고 나라별종합순위에서 또다시 1등을 함으로써 태권도모국의 존엄과 영예를 떨치었다.

정의와 평화의 리념밑에 성황리에 진행된 이번 선수권대회는 나라와 민족, 무도인들사이의 친선과 단결, 단합과 우의를 더욱 두터이하며 정통태권도의 눈부신 발전면모를 남김없이 과





시한 뜻깊은 계기로 되었다.

제20차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 참가자들은 신미리에국렬사릉에 있는 국제태권도련맹 전 총재 최홍희선생의 묘소를 방문하여 화환들과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정통태권도를 과학적인 무도로 발전시키고 전인류에게 보급하기 위한

사업에 모든것을 바친 선생을 추모하였다.

대회기간에 진행된 제26차 국제태권도련맹 총회에서는 2019년에 진행될 제21차 태권도 세계선수권대회 주최지 등이 결정되었다.

사진 김윤혁 글 김미경



평안남도전쟁로병보양소

지난 조국해방전쟁(1950. 6-1953. 7.)에 참가하여 피로써 조국을 지킨 전쟁로병들을 혁명선배, 교양자로 더없이 존경하며 높이 내세우는 조선로동당의 크나큰 사랑의 손길에 떠받들려 평양시를 비롯한 각 도(직할시)들마다에 전쟁로병보양소들이 훌륭히 건설되었다.

풍치수려한 건륭저수지기슥에 일떠선 평안남도전쟁로병보양소도 그 중의 하나이다.

보양소에는 로병들의 건강증진에 좋은 침대방과 온돌방으로 된 30여 개의 침실, 각종 운동기재들이 갖추어진 운동실, 외과, 안과 등의 치료실, 옷놀이와 장기를 할수 있는 오락실, 도서실 그리고 리발실, 미용실, 목욕탕을 비롯한 문화후생시설들이 번듯하게 꾸려져있다.

이곳에서 전쟁로병들은 《세월이야 가보라지》의 노래속에 보양생활의 나날을 즐겁게 보내고있다.

사진, 글 안철원



내 나라가 제일입니다

우리 부부는 보양기간 언제나 기쁨과 행복속에 생활하였습니다. 전화의 불비속을 헤쳐온 전우들과 함께 침략자들을 무찌르고 전승신화를 안아온 위훈담들과 전호가에서 화선휴양소로 떠나가던 전설같은 이야기도 나누고 황혼기도 청춘이라고 소리높이 노래하며 덩실덩실 춤도 추었습니다.



평안남도 평성시 봉학동
전쟁로병부부 리홍철, 최영순

우리 전쟁로병들이 국가와 사회의 관심과 보살핌속에 혁명의 선배로, 옷사람으로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인생의 로년기에도 값높은 삶을 꽃피워가도록 이런 인민적시책을 펼치는 우리나라 사회주의제도가 세상에서 제일입니다.



사랑의 집

전쟁로병보양소에 들어 서던 날 우리의 가슴은 뜨겁게 젖어들었습니다.

보양생들의 신체와 심리적특성에 맞게 꾸려진 온돌방과 침대방, 치료실들, 운동과 문화정서생활도 할수 있는 운동실과 오락실, 도서실...



평안남도 평성시 두무2동
전쟁로병 박득수

갖가지 운동기재로 체력도 단련하고 장지며 옷놀이의 흥겨움속에 웃음꽃을 피우고 건륭저수지에서 낚시질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한 보양생활은 우리에게 젊음을 안겨주었습니다.

진정 이 보양소야말로 우리 전쟁로병들이 로당익장하며 행복을 누리도록 온갖 조치를 취해주는 조선로동당의 뜨거운 은정에 떠받들려 일떠선 사랑의 집입니다.



매일 건강검진도 받는다.



오락실과 운동실에서



보양소에서의 하루하루는 전쟁로병들에게 젊음을 안겨주고있다.

특등상을 받은 소년



김원균명칭 음악종합대학 평양제1음악학원 학생 최장흥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로씨야에서는 제2차 크라이네브명칭 모스크바국제피아노콩클이 진행되었다.
해당 나라 청소년연주자들의 수준을 전문가급에서 평가하는 이 콩클에서는 등수를 가르지 않고 매 부류에서 특등상만을 수여받을 단 한명의 연주를 선출하였다.

여기에서 조선의 최장흥학생은 자기의 음악적인 개성과 성격을 살린 훌륭한 연주를 보여줌으로써 1부류에서 특등상을 수여받았다.

그는 유치원시절에 벌써 제20차 쇼팽국제청소년피아노콩클에 참가하여 경연력사상 가장 나이 어린 1등수상자의 영예를 지니었다.

그때 채치있고 세련된 그의 연주기교를 보고 경연심사위원들은 장흥이는 피아노를 위해 태어난것 같다, 나이는 어리지만 자기식의 독특한 연주법을 가지고있다고 하면서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었다.

나라에서는 그가 김원균명칭 음악종합대학 평양제1음악학원에서 음악적재능을 더욱 활짝 꽃피우도록 하였다.

하기에 그는 이번 콩클무대에서도 사회주의조국의 품에서 태어나 세상에 부러운것없이 재능의 나라를 마음껏 펼쳐온 공지와 사랑을 안고 높은 예술적기량과 연주기교를 요구하는 세계적인 명곡들을 훌륭한 피아노연주기법으로 형상하여 심사성원들과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콩클심사위원장은 최장흥학생의 피아노연주는 심사성원들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였다, 이번 콩클에서 조선의 만만치 않은 교육수준을 현실로 보여준데 대하여 정말로 감사하다고 자기의 격동된 심정을 토로하였다.

로씨야심사위원도 나이가 어린 학생이 전문가들도 무색할 만큼 최고의 수준에서 피아노를 연주한다고 하면서 이 학생의 피아노연주기법만 놓고보아도 조선의 음악교육수준이 얼마나 높은 경지에 이르렀는가를 잘 알수 있다고 하면서 감동을 금치 못해하였다.

최장흥학생은 많은 질문을 하는 기자들앞에서 앞으로 더 열심히 배워 누구나 세상에 부러운것없이 마음껏 재능의 나라를 활짝 꽃피워가고있는 사회주의조국의 현실을 아름다운 선율에 담아 훌륭히 연주함으로써 경애하는 김정원수님께 최대의 기쁨과 만족만을 드리겠다고 하였다.

사진 안평연 글 김선경



최장흥이 제2차 크라이네브명칭 모스크바 국제피아노콩클 1부류에서 받은 특등상장



제2차 크라이네브명칭 모스크바국제피아노콩클에 참가한 최장흥 주체106(2017)년



제20차 쇼팽국제청소년피아노콩클에 참가하여 1등상을 받았다. 주체101(2012)년



더 높은 기량을 소유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열두개의 금메달

- 제29차 여름철세계대학생체육경기대회 -

지난 8월 중국 대북에서 진행된 140여개 나라와 지역의 남, 녀선수 7 000여명이 참가한 제29차 여름철세계대학생체육경기대회에서 조선선수들은 12개의 금메달을 포함한 23개의 메달을 획득하는 자랑스런 성과를 이룩하였다.

지난 시기의 올림픽경기대회와 세계력기선수권대회를 비롯한 여러 국제경기들에서 우수한 전적을 가지고있는 엄윤철선수는 이번 경기대회에서 남자력기 56kg급경기에 출전하였다.

그는 특기기술인 폭발적인 힘에 의한 빠른 순간채기와 받아안기 등 련결동작을 원만히 수행함으로써 끌어올리기에서 129kg을, 추켜올리기에서 165kg을 들어올려 종합 1등을 하여 금메달을 쟁취하였다.

2중올림픽금메달 수상자인 림정심과 지난 2016년 세계청년력기선수권대회, 2017년 아시아력기선수권대회를 비롯한 여러 국제경기들에서 높은 성적을 기록한 림은심자매는 전문가들과 관람자들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여자력기 75kg급경기와 63kg급경기에 출전하여 각각 금메달을 받았다.

신철범, 리수연, 리성금, 김국향선수들도 남자력기 62kg급경기와 여자력기 53kg급

경기를 비롯하여 무무계급별 력기경기들에서 영예의 제1위를 쟁취하였다.

제16차 국제수영련맹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하여 조국인민들에게 기쁨을 준 김국향선수는 물에뛰여들기 녀자 10m고정판경기에서 난도높은 기술동작들을 손색없이 수행함으로써 가장 높은 점수로 우승의 단상에 올랐다.

한편 리현주선수는 남자 10m고정판경기에서, 김은향선수와 김국향선수는 녀자 10m 고정판 동시경기에서, 현일명선수와 김국향선수는 혼성 10m고정판 동시경기에서, 김국향, 김은향, 최은경, 최향선수들은 녀자단체경기에서 우승의 영예를 떨치였다.

탁구 녀자복식경기와 물에뛰여들기 남자 10m고정판 동시경기, 녀자 1m탄성판경기, 녀자 10m고정판경기, 남자력기 69kg급경기에 출전한 선수들은 은메달을 쟁취하였다.

녀자력기 58kg급과 69kg급경기, 탁구혼성복식경기와 남, 녀단식경기, 예술체조 집체 5인륄운동경기에 출전한 선수들은 동메달을 받았다.

제29차 여름철세계대학생체육경기대회에서 이룩한 이 자랑스런 성과는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한 총돌격전에 박차를 가하고있는 온 나라 인민들에게 힘있는 고무로 되였다.



사진 조선중앙통신 글 김선미



어머니의 행복

조선에서 11월 16일은 어머니날이다.
 어머니들은 이날을 한없는 기쁨과 행복, 긍지와 자랑으로 맞이하고 있다.

평성시 덕성소학교 교장 인민교원 최영애도 그러하다.
 한 가정의 주부로서 돌보아야 할 일도 많지만 그는 자식이 잘되길 바라는 어머니심정으로 후대들을 나라의 역군으로 키우기 위한 사업에 모든것을 아낌없이 바쳐왔다.

그것은 학교의 연혁사에 그대로 새겨져있다.
 지난 기간 전국적으로 진행된 소학교학생들의 알아맞추기경연과 시적인 콤퓨터경연에서 우승의 영예 정취, 평양제1중학교를 비롯한 중앙과 도의 상급학교들에 수백명의 학생 입학, 정일봉상 전국청소년학생체육경기대회 예술체조와 수영종목에서 연속 금메달 획득...

나라에서는 그의 공로를 헤아려 그를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와 제13차 전국교육일군대회를 비롯한 국가적인 대회들에 불러주었고 인민교원으로, 선군시대 공로자로 내세워주었다.

어머니로서 그는 자식들도 훌륭히 키워 내세웠다.
 교육사업으로 바쁜 속에서도 자식들의 학습정형을 료해하고 다음날 학교갈 준비를 해주는것을 언제 한번 소홀히 한적이 없었다.

그리고 자식들이 어려서부터 옷사람을 존경하고 동무들을 사랑하며 마음껏 희망의 나래를 펴도록 해주는 고마운 조국에 대한 보답의 마음을 키워가도록 심혈을 기울여왔다.

자기들을 위해 바치는 사랑과 헌신, 한생 조국의 미래를 가꾸어가는 어머니의 모습은 자식들의 세계관형성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하기에 오늘 그의 두 딸들은 인민정권기관과 교육부문에서 인민들의 복리증진과 후대들을 위하여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있는것이다.



어머니날을 맞이하는 최영애와 그의 가족들

뜻깊은 날을 맞으며 어머니를 찾아온 자식들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기들을 위하여 한생을 순결하게 살아온 그에게 축하의 인사와 꽃다발을 드렸다.

《어머니날을 축하합니다.》라고 하면서

사진 안철룡 글 김선경



후대교육사업에 모든것을 다 바쳐가는 최영애를 자주 찾곤 하는 제자들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담아



천연기념물

안변느티나무

조선동해안의 강원도 안변군 안변읍에는 천연기념물로 보호관리되고 있는 안변느티나무가 있다.

이 나무는 풍치상으로만이 아니라 학술적으로도 의의가 있으므로 주체69(1980)년 1월 천연기념물 제203호로 지정되어 보호되고있다.

1440년경에 심은 나무의 높이는 20m, 뿌리목둘레는 9. 8m, 가슴높이둘레는 7. 6m이다.

나무갯은 우산모양이며 너비는 25m이다.

나무는 화강암지대에 생긴 갈색산림토양, 모래메흙에서 자란다.

이 지대의 년평균기온은 10. 4℃이고 강수량은 1 127mm이다.

수백년간 자라고있지만 나무의 세력상태는 비교적 좋다.

사진, 글 최원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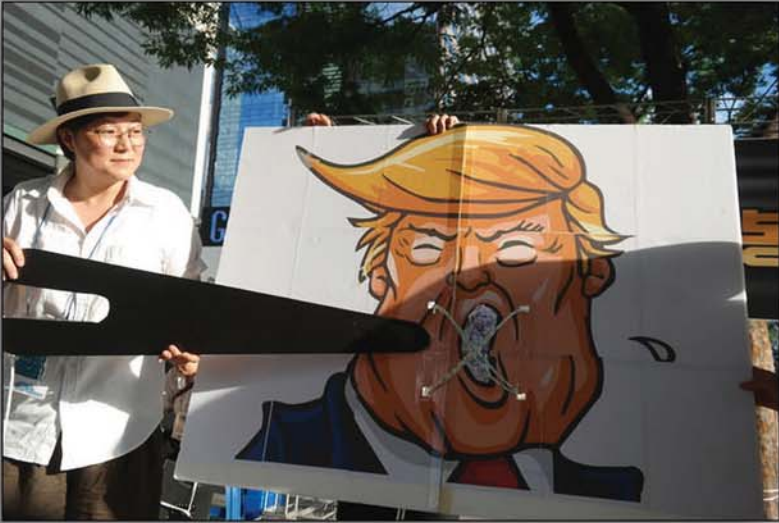




선전화 《조선의 대답!》



선전화 《준결히 규탄, 전면배격!》



전대미문의 무지막지한 미치광이나발을 불어대며 조선반도의 정세를 위기로 몰아가는 미국대통령 트럼프를 조소하는 남조선인민들



남로 고조되는 남조선인민들의 반미, 반전투쟁기운

남조선에서 《군건한 동맹》, 《혈맹》이요, 《우방》이요 하면서 너스레를 떨던 미국의 침략적본색이 드러나 반미기운을 고조시키고 있다.

지난 8월 조선반도에 전쟁위기를 몰아온 미국대통령 트럼프가 《전쟁이 나더라도 조선반도에서 나는것이고 수천명이 죽더라도 거기서 죽는 것이지 미국에서 죽음이 나는것이 아니다.》라고 남조선인민들을 저들의 대포밥으로, 총알밥이로밖에 여기지 않는 망발을 제친데 이어 미국은 《싸드》추가배치까지 강요하고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려 조선반도정세를 핵전쟁정경으로 몰아갔다.

남조선인민들의 생명은 파리목숨만큼도 여기지 않는 미국식인종들의 음흉한 심보에 분격한 각계층 인민들은 서울의 광화문광장과 미국 대사관앞에서만 아니라 각지에서 반미집회와 시위들을 벌리고있다.

민주로총을 비롯한 각계층 시민단체들이 참가한 집회와 시위들에서는 미국이 그 무슨 《북핵위협》에 대해 요란스레 광고하며 그에 대비한다는 구실밑에 반공화국압살소동에 피눈이 되어 날뛰고있는것은 남조

선을 보호하기 위한것이 아니라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 저들의 지배주의적야망을 실현하기 위한것이라고 폭로하였다.

그리고 《트럼프는 우리 국민의 생각같은것은 안중에도 없다. 수천명, 수만명이 죽어도 조선반도의 일이라는 그의 인식 자체가 충격적이다.》, 《조선반도는 미국의 전쟁놀이터가 아니다.》, 《미국은 <우방>도, <보호자>도 아니다.》, 《미국은 이 땅에서 떠나라.》고 단죄규탄하였다.

한 인터넷신문에는 트럼프와 미국을 신랄히 조소하고 단죄하는 시《엎드려 사죄하라 트럼프여》가 실려 각계의 이목을 끌었으며 서울의 미국대사관앞에서는 청년학생들과 시민단체들이 전쟁미치광이 트럼프의 《장례식》을 가지며 남조선인민들의 반미기운을 더욱 고조시키였다. 남조선인민들속에서 높아가는 반미투쟁은 침략자, 략탈자, 평화의 교란자인 미제에 대한 응당한 대가이다.

사진 조선중앙통신 글 김래현



지난 9월 7일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내외의 커다란 반대에도 불구하고 파쑈경찰들을 내몰아 살벌한 폭압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끝끝내 《싸드》발사대 추가배치를 강행하였다.



소식

사진 조선중앙통신

피델 까스트로 루쓰동지의 생일 91돐과 쿠바인민과의 련대성월간에 즈음하여 사진전시회 진행



대동강외교단회관에서는 피델 까스트로 루쓰동지의 생일 91돐과 쿠바인민과의 련대성월간에 즈음하여 사진전시회가 있었다.
전시회에서 참가자들은 전통적인 조선과 쿠바 두 나라사이의 친선 관계를 마련해주시고 강화발전시켜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과 피델 까스트로 루쓰동지의 생애를 보여주는 사진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2017년 세계구급처치의 날에 즈음한 행사 진행



창덕학교에서는 2017년 세계구급처치의 날에 즈음한 행사가 진행되었다.
《가정에서의 구급처치》라는 주제로 진행된 행사에서는 심폐소생법, 출혈, 화상, 골절시 구급처치법, 한자후송법 등의 경기와 조선청소년적십자회원들의 예술소품공연이 있었다.

제7차 국제무도경기대회 봉화채화의식 진행



올해 12월 벨라루스에서 열리는 제7차 국제무도경기대회 개막식장의 봉화대에 지퍼지게 될 봉화를 채화하는 의식이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전국정보화성과전람회-2017》 진행



《전국정보화성과전람회-2017》이 3대혁명전시관에서 있었다.
많은 단위들에서 내놓은 정보화성과들과 정보기술제품들이 전시된 전람회에서는 정보화실현과정에 해결한 과학기술적내용과 경제적효과성, 도입정형 등이 심사평가되었다.

